

리스사의 위기 대응 방안

염택선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IMF경제지도체제 이후 은행과 증금사를 시작으로 금융 기관과 기업의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실화가 심각한 리스사의 구조 조정은 은행과 증금사에 이어 제2단계로 예정되어 있다. 리스사의 부실화는 시장 경쟁 심화에 의한 수익성 하락과 기업 연쇄 부도에 의한 부실 자산의 급증 그리고 신인도 하락 및 금융 시장 경색에 의한 유동성 위기 등에 기인된 것이다. 따라서 리스사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위기로 인한 도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유동성 위기를 넘기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영 능력 부족,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한 생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정부의 금융 기관 구조 조정 추진 제2단계인 리스사의 부실 현황과 부실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조 조정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은행의 리스사 자금 지원 역할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실화가 심각한 일부 리스사는 더 이상 존속하기 힘든 실정이다.

머리말

최근 리스사의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1998년 1월 리스사로는 처음으로 중앙리스가 1차 부도 처리되었으나, 모회사인 충북은행의 긴급 자금 지원과 채권 은행들의 부도 취소로 파산을 간신히 모면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제일씨티리스와 서울리스가 공식적으로 회사 매각을 공표하였으며, 일부 리스사의 매각설이 유포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금융 기관

정부의 금융 기관 구조 조정 정책 추진 일정을 보면 리스사는 은행과 증금사에 이어 제2단계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리스사의 경영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리스사의 현황과 부실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1〉 금융 기관 구조 조정 추진 일정

추진 일정	대상 금융 기관
1단계(진행중)	증금사, 은행
2단계(1998년 상반기)	리스사, 증권사, 생보사, 보증보험사
3단계(1998년 하반기)	투신사
4단계(1999년)	여타 금융 기관

리스사의 부실화 원인

리스사가 부실화된 원인은 크게 ① 시장 경쟁 심화에 의한 수익성 하락, ② 기업 연쇄 부도에 의한 부실 자산의 급증, ③ 신인도 하락 및 금융 시장 경색에 의한 유동성 위기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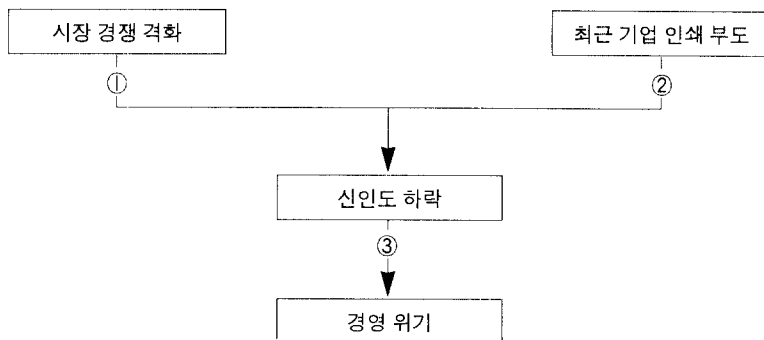
리스 시장은 25 개 리스사와 30 개 종금사 그리고 4 개의 신기술금융사 등 총 59 개사가 각축을 벌여왔다. 리스사는 1988년 8 개사에 불과하였으나,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1989~91년 사이에 17 개사가 신설되었다. 또한 종금사와 신기술금융

사의 리스 겸업이 각각 1978년, 1989년에 허용되었다.

겸업 리스사의 리스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1997년 6월 현재 약 30.0%(리스 실행액 2조 97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1998년 1월부터는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이 자유롭게 리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향후에는 더욱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최근 리스 시장 경쟁의 심화로 치열한 출혈 경쟁이 초래되었으며, 리스 실행액도 1990~95년 기간 동안에 10~50% 정도의 성장을 보여왔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설비 투자 감축으로 1996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까지만해도 2~3%

〈그림 1〉 리스사의 경영 위기 흐름



- ① 외형 위주 영업 · 수익성 악화
- ② 부실 여신 및 연체 리스료 급증
- ③ 리스채 발행 급감, 신규 차입 중단, 만기 도래분 상환 독촉

〈표 2〉 리스업 취급 금융 기관 현황

(단위: 개사)

	리스사	종금사	신기술금융사	합계
1972~88년	8	6	-	14
1989~91년	25	6	4	35
1992~97년	25	30	4	59

주: 종금사는 1993년까지 6 개사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과 1996년에 각각 9 개사, 15 개사의 투금사가 종금사로 전환하여 총 30 개사임.

를 기록하던 리스 마진율은 1996년에는 0.5~1%, 현재는 0.5% 미만으로 급감하였으며, 이러한 리스 마진율의 하락은 외형 위주의 영업을 부추겨 부실 기업에 대한 리스 실행도 단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리스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는 곧바로 리스사의 경영 실적을 악화시켰다. 자산의 생산성(영업 수익/총자산)은 1995년 21.0%에서 1997년 20.8%로 현상

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기 자본의 수익성(순이익/자기 자본)은 1995년 11.3%, 1996년 8.7%, 1997년 7.2%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96.1%로 1995년 91.7%와 비교하여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금융 비용 부담은 영업 수익의 36.0%로 전년 실적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리스 실행액 추이

(단위: 억 원, %)

	총 리스 실행액		전업사		겸업사	
	증가율	실행액	점유율	실행액	점유율	
1978	279	25.7	279	100.0	-	-
1979	593	114.3	567	95.6	26	4.4
1990	33,657	34.7	25,362	75.4	8,295	24.6
1991	51,364	52.6	39,480	76.9	11,884	23.1
1992	66,956	30.4	55,676	83.2	11,280	16.8
1993	73,790	10.2	60,635	82.2	13,155	17.8
1994	104,360	41.4	91,398	87.8	12,962	12.2
1995	143,285	37.3	115,860	80.6	27,425	19.4
1996	137,867	-3.8	107,419	77.9	30,448	22.1
1997. 6	69,805	-	48,835	70.0	20,970	30.0

자료: 여신전문금융협회.

주: 겸업 리스사는 종금사와 신기술사업금융사임.

〈표 4〉 리스사의 경영 실적

	(%)		
	1995. 3	1996. 3	1997. 3
영업 수익/총자산	21.0	19.4	20.8
순이익/자기 자본	11.3	8.7	7.2
영업 비용/영업 수익	91.7	94.8	96.1
금융 비용/영업 수익	34.5	39.8	36.0

주: 각년도 재무제표를 근거하여 분석한 자료임.

2) 기업 연쇄 부도에 의한 자산 부실화

1997년 1월, 한보를 시작으로 기아, 삼미, 한라, 청구 등 대기업의 연쇄 부도로 인해 금융 기관의 부실화가 심화되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금융 기관 전체 부실여신 규모는 32조 원(총여신 대비 6.3%)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 리스사의 총여신 대비 부실여신은 증권사(16.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13.2%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리스 25개사 전체 자기 자본 1조 7,396억 원의 세 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여기에 금융 시

〈표 5〉 부실 여신 규모

	(단위: 억 원, %)		
	총여신	부실여신	부실 비율
은행	3,754,364	22,6427	6.0
증권	105,886	17,582	16.6
보험	481,379	11,081	2.3
종금	387,870	15,077	3.9
리스	383,301	50,900	13.2
합계	5,112,800	321,067	6.3

자료: 1997년말 현재 한국은행.

장 경색에 따른 시중 금리의 급등으로 의도적인 리스로 연체가 급증하여 리스사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리스사의 부실여신 급증은 경기 침체라는 시장 상황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체 여신 심사 기능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1980년 처음으로 신용 리스 규모(58.4%)가 담보 리스 규모를 앞지르기 시작하여 1997년 6월 현재 리스 실행액 구성비는 신용 89%, 담보 11%로 신용 리스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차입자에 대한 여신 심사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25개 리스사 가운데서 제일씨티리스, 한일리스금융, 신한리스 등 3개사만이 여신 심사 부서를 별도

〈표 6〉 신용 및 담보 리스 구성비

	(%)	
	신용 리스	담보 리스
1978	27.0	73.0
1979	28.1	71.9
1980	58.4	25.9
1990	74.1	25.9
1991	69.7	30.3
1992	78.3	21.7
1993	85.6	14.4
1994	85.8	14.2
1995	85.9	14.1
1996	85.4	14.6
1997. 6	89.0	11.0

자료: 여신전문금융협회.

로 설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22 개사는 독립된 여신 심사 부서도 없는 실정이다.

3) 유동성 위기 증대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의 악화는 자연스럽게 리스사의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자금 조달 및 외화 대출금의 상환 독촉, 기간 불일치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모회사인 은행의 자금 지원도 중단되는 등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리스채 매입 기관인 증권, 투신 등은 리스채 신규 인수의 거부는 물론, 만기 도래분의 상환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996년 98.8%, 1997년 90.7%를 기록하였던 리스채(리스사 원화 자금 조달의 90% 이상을 차지)의 발행률이 1998년 3월 현재 8.3%에 그치고 있다.

외화 부문의 유동성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1월 중앙리스 부도 위기로 리스 업계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계 금융 기관들은 원리금의 중도 상환을, 국내

금융 기관들은 외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중도에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리스사들은 국가 채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향후 리스 업계의 외화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말 현재 25 개 리스사의 외화 부채는 222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총외채의 13.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자금 조달 및 운용 상의 기간 불일치는 구조적인 유동성 부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리스사의 전체 자금 조달액 가운데서 3년 이내의 단기 자금 조달액이 1997년 현재 65.0%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운용 기간은 1~5년이 전체 리스 실행액의 26.8%이며, 5~7년이 35.7%, 7년 이상이 37.5%로 나타나 자금 조달과 운용의 기간 불일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은행의 자금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리스사의 유동성 부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7〉 리스채 발행 규모

(단위: 억 원, %)

	1996	1997	1998. 3 현재
배정액	50,803	49,572	18,435
발행액	50,190	44,969	1,525
발행률	98.8	90.7	8.3

〈표 8〉 자금 조달과 운용

(%)

		1995	1996	1997
단기 자금/전체 자금		72.2	68.1	65.0
리스 실행 기간	1~5년	26.9	32.7	26.8
	5~7년	43.7	35.6	35.7
	7년 이상	29.3	31.7	37.5

자료: 여신전문금융협회.

대응 방안

리스사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위기로 인한 도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유동성 위기를 넘기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영 능력 부족,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해 생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스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재무 구조 건실화, 합병을 통한 대형화 등을 추구하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산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여신 심사 기능의 강화, 여신 전문 금융 기관으로의 전환, 수익성 중시 경영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단기적 대응 방안

은행의 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리스사의 퇴출 및 회생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것이 정부의 리스업 구조 조정의 방향이다. 따라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리스사는 부실화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퇴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단, 회생 가능성이 있는 리스사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무 구조를 건실화해야 할 것이다. 과잉 인력의 과감한 축소로 경상 비용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수익성없는 해외 점포 폐쇄와 유틸 자산의 매각 그리고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유도하여 자본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규모의 대형화를 달성해야 한다. 리스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존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스사간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규모의 대형화가 달성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위험을 상대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장기적 대응 방안

리스사가 장기적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첫째, ALM(자산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해야 한다. ALM시스템이란 자산과 부채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금 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ALM시스템을 구축

하여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 결정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익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부실여신, 금리, 환율 등 경영에 민감한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 ALM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둘째, 여신 심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리스사의 여신 심사는 기업의 사업성이나 재무 구조보다는 기업의 배경, 동종사의 여신 유무 혹은 시장 확보 차원 등에 의해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여신 심사 부서를 설치하고, 여신 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형식적인 여신 심사를 배제하고 기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정확하게 판단, 부실 여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셋째, 여신 전문 금융 기관으로 전환

하여 영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1998년 1월부터 최소 자본금 요건(1~2개 분야 진입: 자본금이 200억 원 이상, 3~4개 분야 진입: 자본금 400억 원 이상)만 충족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리스, 카드(허가제),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3월 현재 25개 리스사의 자본금은 모두 200억 원 이상이며, 한일리스금융(715억 원)을 비롯한 11개 리스사는 자본금이 4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여타 분야에 추가로 진입할 수 있다. 따라서 리스사는 여신 전문 금융 기관으로의 전환을 통해 설비금융리스와 소비자금융리스를 동시에 공략함으로써 영업 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외형 위주의 경영에서 탈피하여 수익성 중시 경영으로의

〈표 9〉 여신 전문 금융 기관 현황 및 시장 규모

	회사 수	평균 자기 자본 ¹⁾	시장 규모 ²⁾
리스	25 사	696억 원	16.9조 원
카드	8 사	909억 원	60.0조 원
할부금융	31 사	390억 원	14.1조 원
신기술사업금융	4 사	890억 원	1.7조 원
합계	68 사	573억 원	92.7조 원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주: 1) 1997년 기준임. 2) 시장 규모는 1996년 거래 기준임.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실여신의 급증을 초래하였던 과거의 고위험 박리다매식의 영업 관행을 타파하고 내실있는 경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HR

〈부록〉 리스사 현황

(단위: 개사)

리스사명	설립 연도	지점 수	모회사
한국산업리스	1972년	5	산업은행(33.2%)
한국개발리스	1975년	4	오릭스(26.2%)
			장기신용은행(20.7%)
제일씨티리스	1975년	2	제일은행(49.1%)
			씨티은행(49.1%)
한일리스금융	1984년	2	한일은행(32.8%)
국민리스	1984년	2	국민은행(50.5%)
부산리스금융	1985년	2	부산은행(36.8%)
한국기업리스	1985년	4	중소기업은행(47.0%)
대구리스금융	1985년	1	대구은행(56.5%)
중앙리스금융	1989년	1	충북은행(30.0%)
신보리스금융	1989년	1	신용보증기금(33.6%)
서울리스	1989년	1	서울은행(30.3%)
조흥리스금융	1989년	1	조흥은행(33.4%)
외환리스금융	1989년	1	외환은행(30.0%)
한미리스	1989년	1	한미은행(40.0%)
경남리스금융	1989년	2	경남은행(29.5%)
경인리스금융	1989년	1	경기은행(30.0%)
상온리스	1989년	1	상업은행(49.3%)
중부리스금융	1989년	1	충청은행(30.0%)
전온리스	1990년	1	전북은행(38.3%)
광온리스금융	1990년	1	광주은행(31.8%)
신한리스	1991년	2	신한은행(30.0%)
대동리스금융	1991년	1	대동은행(30.0%)
주온리스	1991년	1	주택은행(50.0%)
동남리스금융	1991년	2	동남은행(30.0%)
동화리스금융	1991년	2	동화은행(35.6%)

자료: 여신전문금융협회.

주: 신보리스금융을 제외한 24 개 리스사가 모두 은행 자회사임.